

서울적십자병원,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기사입력시간 : 2024/11/11 [08:18:00]

유시온 기자

【후생신보】 서울적십자병원(원장 채동완)은 지난 1일 '2024년 공공의료사업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사회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서울적십자병원 공공의료사업을 알리고 연계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적십자병원은 우수 협력 기관인 서대문보건소에 감사장을 수여했다. 감염내과 정현걸 과장은 '예방접종의 이해'를 강의했다. 사업별 논의와 서북권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에 대한 안내도 했다.

김시완 은평구보건소장, 권선진 종로구보건소 지역건강과장, 김동훈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장을 비롯해 복지관, 쪽방상담소, 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가족센터, 미혼모자시설, 치매안심센터 등 총 20개 기관에서 관계자 64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서울적십자병원 공공의료사업의 필요성과 개선점을 파악했다. 지역사회 요구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에도 효과적인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적십자병원 채동완 원장은 "최근 다양한 의료이슈로 필수 의료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병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서울적십자병원은 공공의료의 최전선에서 다양한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